

건설업 취업자 및 기능 인력 임금, 1.5% 안팎 늘어날 전망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건설 투자 및 취업자 동향

건 설 투자가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5.9% 감소한 69.9조원이고, 하반기에는 2.0% 증가한 8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현재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8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3월과 4월에는 과거 4년에 비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7.0%로 저점을 기록한 후 5월에는 약간 회복되어 7.2%에 머물러 있다. 건설 투자의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 역시 위축되어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능인력 고령화 속도 빨라

2010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중이 59.0%인 것에 비하여 건설 기능인력 가운데 40대 이상의 비중이 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01년과 비교하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40대 이상의 비중이 약 10%p 증가한 데 비해 건설 기능인력의 경우 약 15%p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1.5배나 빠르다.

기능 인력의 숙련 형성에 약 5년 정도 소요되고 건설 생산물의 품질이 숙련 인력의 근력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기능 인력의 고령화는 건설산업의 생산 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수 및 건설 투자 추이

(단위 : 천명,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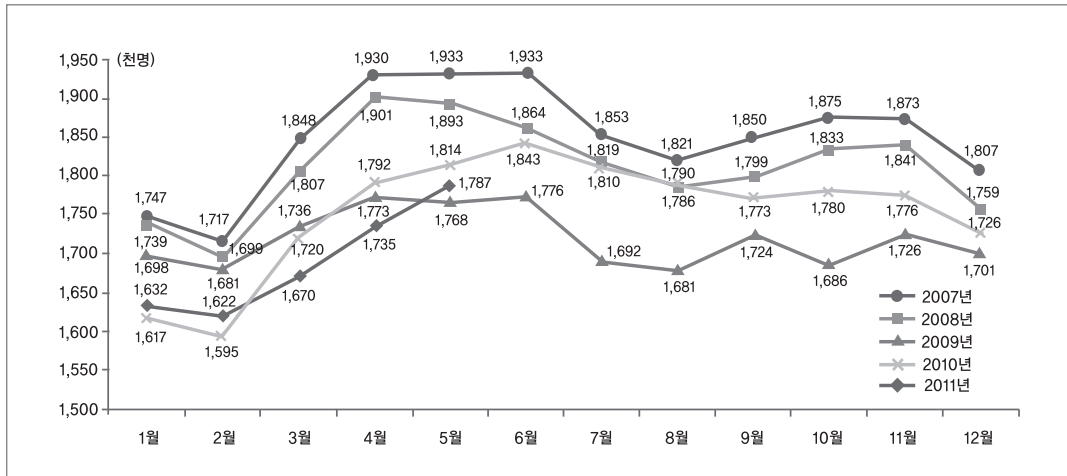
구분	시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	2	3	4	5
취업자	전(全) 산업	23,433	23,577	23,506	23,829	23,196	23,336	23,846	24,303	24,661
	건설업	1,849	1,812	1,720	1,753	1,632	1,622	1,670	1,735	1,787
	건설업 비중	7.9	7.7	7.3	7.4	7.0	7.0	7.0	7.1	7.2
	전년 동기비 증감률	0.9	-2.0	-5.1	1.9	0.9	1.7	-2.9	-3.2	-1.5
	건설투자(2005년 불변가격)	158.4	153.9	159.2	157	69.9(상반기 전망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8	3.4	-1.4	-5.9				

주 : 2011년 건설 투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각 연도 및 각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특 집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건설업 취업자의 월별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각 연도 및 각 월.

건설 기능인력의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하루 8시간 기준)

(단위 : 원, %)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07. 5	2007. 9	2008. 5	2008. 9	2009. 5	2009. 9	2010. 5	2010. 9	2010. 5	2010. 9
보통 인부	58,883	60,547	63,530	66,622	67,909	68,965	70,497	72,415	3.8	5.0
숙련공 평균	91,361	93,716	96,190	96,714	97,239	98,726	99,896	101,314	2.7	2.6
형틀목공	94,357	96,690	97,678	100,469	101,873	100,730	101,932	104,308	0.1	3.6
건축목공	96,686	102,164	102,173	101,831	99,763	96,310	98,254	99,722	-1.5	3.5
비계공	104,231	107,592	114,640	116,264	116,944	118,515	117,090	120,681	0.1	1.8
조적공	87,829	86,508	91,518	89,437	90,619	95,916	100,263	102,200	10.6	6.6
미장공	88,702	89,567	93,122	93,579	94,140	95,659	98,280	100,562	4.4	5.1
방수공	69,549	76,130	76,896	75,703	76,579	80,553	81,638	82,178	6.6	2.0
타일공	100,416	98,698	98,480	95,954	96,865	101,048	104,474	105,611	7.9	4.5
콘크리트공	94,550	97,531	99,880	98,735	100,639	103,780	100,947	103,765	0.3	0.0
배관공	79,781	83,392	86,717	87,372	86,513	89,975	91,564	92,988	5.8	3.3
도장공	88,520	91,764	90,721	93,734	93,715	92,700	95,987	93,119	2.4	0.5
철근공	100,345	100,835	106,266	110,775	111,980	110,803	108,427	109,325	-3.2	-1.3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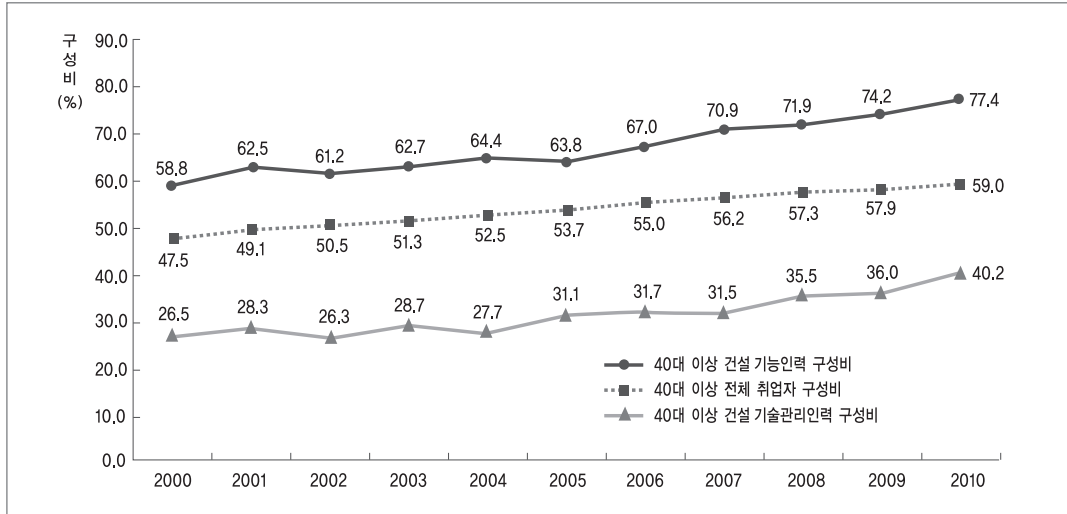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

대한건설협회의 임금실태 조사 자료(하루 8시간 환산 임금)에 의하면 건설 투자의 증감 변동에도 불구하고 건설 근로자의 주요 직종별 임금은 미미하나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0년 9월 시점의 조사 자료

에 의하면 비숙련 인력인 보통 인부의 임금은 7만 2,41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 인력의 평균 임금은 10만 1,314원으로 2.6% 상승했다.

임금 동향을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 9월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주 : 기능 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기술 관리 인력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설 취업자 수와 임금 모두 미미하나마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루 8시간으로 환산된 일일 일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20,681원)이고 그 뒤를 철근공(109,325원), 타일공(105,611원), 형틀목공(104,308원), 콘크리트공(103,765원) 등이 잇고 있다. 1년 간의 직종별 일일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조적공의 경우 6.6%가 올라 6,284원 상승했고, 미장공의 경우 5.1%가 올라 4,903원이 상승했으며, 보통인부의 경우 5.0%가 올라 3,450원 상승했다.

반면, 철근공의 경우 1.2%가 감소해 1,478원이 하락했고, 콘크리트공의 경우도 미미하나마 0.014%가

특 집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2011년 하반기 건설 기능인력 수요 및 임금(8시간 기준) 전망

(단위 : 조원, %, 천명, 원)

직종명	2009년	2010년			2011년(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 투자	159.2	74.2	82.7	157.0	69.9	84.4	154.2
인력 수요	건설업 취업자	1,720	1,730	1,776	1,753	1,708	1,755
	건설 기능인력	1,185	1,237	1,270	1,253	1,223	1,254
일일 임금	숙련 인력	98,437	99,896	101,314	100,605	101,494	102,834
(8시간 기준)	비숙련 인력	68,437	70,497	72,415	71,456	72,471	73,21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건설 투자	3.4	4.1	4.7	4.4	-5.9	2.0	-1.7
인력 수요	건설업 취업자	-5.1	-0.5	4.3	1.9	-1.3	1.5
	건설 기능인력	-3.5	3.2	8.3	5.8	-1.1	1.2
일일 임금	숙련 인력	2.4	2.7	1.7	2.2	1.6	1.5
(8시간 기준)	비숙련 인력	5.2	3.8	5.0	4.4	2.8	1.1

주 : 건설 투자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이며,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일일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숙련 인력 임금은 11개 주요 직종의 평균 임금이며, 비숙련 인력 임금은 보통 인부의 임금을 의미함. 2011년 수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감소해 15월이 하락했다.

하반기 건설업 취업자 1.5% 증가 예상

건설업 취업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건설 투자가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9%가 감소하나 하반기에는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 투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나 변동 폭은 건설 투자에 비해 작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미미하나마 전년 동기에 비해 취업자 수와 임금이 모두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5% 증가한 172만 1,000명, 그리고 기능 인력 수는 1.2% 증가한 128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전망할 경우 2011년 연간으로 보아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175만 5,000명에 이르고, 기능 인력 수 역시 0.1% 증가한 125만

4,000명에 달해 2010년에 이어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2년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던 추세로부터는 벗어나게 된다.

임금 역시 소폭 오를 듯

2011년 상반기에 숙련 인력의 경우 10만 1,494원(하루 8시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고 비숙련 인력의 경우 7만 2,471원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내국인 고령화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의 수는 감소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인력의 임금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의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숙련 인력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5% 오른 10만 2,834원이 되어 1,520원 인상되고, 비숙련 인력의 경우 1.1% 오른 7만 3,212원이 되어 797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CERIK